

세계수영선수권 광주 유치 전망 밝아졌다

정 총리 실사단 점견 정부 지지의사 표명 코넬 사무총장 “시설·예산 등 약점 없다”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여부를 결정할 국제수영연맹(FINA)의 광주 현지실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이번 현지실사에서는 특히 정총리실사단과 정총리, 김경행 대한체육회 회장, 이기홍 대한수영연맹회장은 지난 1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정총리실사단을 면담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스포츠가 수영이며, 광주시민 70%가 수영대회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내에서도 매년 13개의 수영대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최근엔 박태환, 정다래

강운태 시장은 “애초 경쟁도시가 헝가리 부다페스트 한 곳 뿐이었지만 최근엔 아제르바이잔의 바쿠와 UAE의 아부다비 등 세 곳으로 늘어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정부와 대한체육회, 대한수영연맹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코넬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정 총리의 지지에 감사한다”고 밝히고 “지난 2년간 광주시와 재정·시설·마케팅 부문에서 지속적이고 다양한 논의를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광주 현지실사와 관련해

“대회 시설과 지원체계, 예산, 발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 준비가 매우 잘 되어 있고 약점이 없었다”고 평가하고 “특히, 실시간 광주시민들의 뜨거운 열정과 특별한 환대는 다른 도시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코넬 사무총장은 이와 함께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중 아마추어들이 참여하는 마스터스대회에는 전세계에서 1만2000여명이 자비를 들여 출전하기에 광주시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회

가 광주에 유치되면 TV를 통해 대회를 시청하는 전세계 35억명에게 광주를 알릴 수 있게 되며, 광주의 젊은이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석 세계수영선수권대회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은 “FINA실사단이 이번 현지실사에서 광주의 준비상황과 시민의 열정에 크나큰 만족감을 표시하고 돌아갔다”며 “대회유치가 결정되는 7월 19일까지 방침하지 않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지난 1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접견실에서 정총리실사단 정총리와 강운태 광주시장 등이 코넬 사무총장 등 FINA실사단에게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지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 시티투어 버스 운행

매주 토·일요일 역사문화·박물관 탐방 2개 코스

광주시관광협회가 광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 지역의 문화유산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광주시 도시관광(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6일 광주시관광협회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2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사이에 2개 코스로 나눠 시티투어 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관광협회는 전세버스 업체와 출고 3년 이내의 40인승 대형버스 3대의 계약을 체결하고 문화관광해설사, 관광통역안내원 등을 선발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티투어 정기코스는 2개를 운영한다. ▲역사문화 탐방코스(의창코스)는 광주종합터미널~광주역~국립5·18묘역~소쇄원~환벽당~충장사~5·18사적지~양림동역사문화마을~광주종합터미널 구간이며 ▲박물관 탐방코스는 광주종합터미널~국립광주박물관~시립민속박물관~시립미술관~전통문화관·증심사·의제미술관~광주종합터미널 등을 거치는 각각 8시간의 코스다.

탐승료는 성인 기준 2000원, 국가유공자·유치원·초중고생 1000원, 보호자와 함께 온 미취학 아동은 무료다. 또 시설 입장료와 체험비, 증심사 등은 관광객이 현지에서 직접 내야 한다. 광주시 관광 포털 사이트 ‘U-TOURPIA’에서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증심사→무등산국립공원(증심사)으로 무등산행 시내버스기·종점 명칭 변경

광주시는 6일,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서 탐방객이 많아짐에 따라 시민이 시내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7일부터 시내버스 이용시설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현재 증심사 방면으로는 시내버스 8개 노선 121대가 하루 1155회 운행되고 있으며, 원효사(무등산장) 방면에는 시내버스 2개 노선 12대가 하루 128회씩 운행되고 있다. 그러나 경우하는 정류소가 660곳에 이를에도 무등산 방면으로 운행하는 행선판과 정류소 운행노선도의 기·종점 정류소 명칭이 ‘증심사’ 또는 ‘원효사(무등산장)’로만 표기돼 무등산을 찾는 외국인 등에게 시내버스 정보를 정확히 알려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무등산 방면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행선판과 정류소의 기·종점 정류소명칭을 ‘증심사’는 ‘무등산국립공원(증심사)’으로 ‘원효사(무등산장)’는 ‘무등산국립공원(원효사)’으로 각각 변경하고, 버스 운행정보시스템(BIS)과 차내 안내방송 등도 정비할 예정이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서 세계인권도시포럼

15일~18일 DJ센터서...42개국 109개도시 참가

2013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포럼은 공식행사 3개, 본회의 9개, 특별회의 4개, 부대행사 4개로 구성된다. 공식행사는 개회식, 오프닝라운드테이블, 폐회식 등으로 진행된다.

또 본회의는 광주 인권도시 가이드라인 전문가 회의, 인권제도와 정책, 공무원 인권교육, 건축과 인권, 환경과 인권, 도시와 장애, 도시와 여성, 도시와 어린이·청소년, 국가폭력과 인권도시 등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특별회의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인권기록물 소장 기관 대표자 회의 등 4개 회의가 열린다.

올해 포럼 주제는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 : 인권도시를 위한 이행 지침들’로 정해졌다.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지난 2011년 세계인권도시 포럼에서 채택된 광주 인권도시 선언문에 명시된 인권도시 비전을 실천하고 민주·인권·평화도시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인권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2011년부터 연례행사로 열리고 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옛 남구청사 부지 수의계약 나서

3차 입찰도 응찰자 없어...남구 이달중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 있는 옛 남구청사 부지 매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3차까지 이어진 입찰에 응찰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구청이 계약입찰을 진행하는 대신, 수의계약과 공영개발을 진행하겠다고 나섰다.

부동산 가격이 침체된데다 해당 부지의 높은 가격에 부담을 느낀 건설업체가 선택 나서지 않은 탓으로, 특히 부지를 낙찰받은 업체는 대금을 60일 이내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도 부담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아직도 옛 남구청사 부지에 대한 건설업체의 관심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문성고를 비롯한 우수 학교와 학원이 밀집해있는데다 상권은 물론 교통이 원활하고, 해당 부지의 용도가 지난해 주거지역에서 준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다양한 개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6일 광주시 남구에 따르면 구청사 부지(토지 1만8964㎡, 건물 9975㎡)에 대해 지난 2월28일부터 14일, 3월15일부터 25일까지 2차례에 걸쳐 최저입찰가 337억6869만5310원을 책정했으나 응찰자가 없어 모두 유찰됐다. 지난달 16일부터 진행된 3차 입찰은 최초 매각 가격보다 10% 낮은 303억9182만5770원으로 최저입찰가가 책정됐지만, 역시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 건설업체에서는 이 부지가 일반 주거지역보다 용적률과 건폐율이 높은 탓에 상업과 주거를 구분하지 않는 고밀도 개발이 가능

하며 구체적으로는 주상복합 아파트나 주거와 업무가 동시에 가능한 오피스텔 형태의 개발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지역 건설업체 3~4곳이 부지 계약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주상복합으로 이윤을 극대화하거나 자신의 브랜드를 내세우는 명품 아파트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예산 분양가는 평당 900만원 선으로, 아파트의 경우 400세대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 단지 개발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동구 국비 10억원 확보

청장·의장, 장관 간담회

노회용 광주시 동구청장과 চে명희 동구의회의장이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했다.

6일 동구에 따르면 노청장과 চে 의장은 지난 2일 안전행정부 장관·차관과 간담회에서 노구청사 정비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했다. 이들은 또 안행부로부터 지역숙원사업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등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이번 예산 확보는 집행부와 의회가 지역발전을 꾀하기 위해 공동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북구 협동조합 마을학교

6일부터 28일까지 운영

광주시 북구는 6일 협동조합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협동조합 마을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6일부터 28일까지 총 23일간이다. 북구는 27개 동 주민센터를 순회방문해 ▲협동조합 의미 ▲조합의 설립절차 ▲모범 우수사례 ▲질의응답 순으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북구에선 지난해 12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이후 34개의 협동조합이 설립·신고돼 운영 중이다. 북구는 그간 지원정책 제정·센터 설립·지원위원회 구성 등 협동조합 조기정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질,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비파괴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미화방수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www.semenergy.co.kr / greenpw.co.kr

태양광 R.P.S.사업부

“햇빛 재테크” 소용량(10~30kw)태양광 발전사업 **40kw 이상 대용량 설치 가능**

희망찬 노후를 설계하세요!

태양광 RPS발전사업이란?
사업주께서 건물(옥상) 또는 대지에 발전사업 설비용량에 따른 적절한 금액을 투자하여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시공하여 생산된 **신재생에너지(전기)**를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하여 판매하는 제도

태양광 발전사업자 수익금
(은행 예치 대비 태양광 설치 시 약 4.5배 이상 기대)

년 480만(예상수익)	10kw 소용량 발전사업 월 수익 약 400,000원 예상
년 960만(예상수익)	20kw 소용량 발전사업 월 수익 약 800,000원 예상
년 1440만(예상수익)	30kw 소용량 발전사업 월 수익 약 1,200,000원 예상

※ 인증서 판매가격: 입찰을통하여 결정

태양광주택발전(주택용) 설치후 효과 **자부담 550 ~680만원**

기존 전기료의 약 **80%** 절감효과
설치비용은 1년거치 5년상환제로 결제가능(농협특화사업)
3개월 무이자가능(크리탈부)
※ 3kw용량의 발전설치시 월평균 약300~400kw의 전력이 생산가능하고 사용량이 많을수록 더욱 절감 됩니다.

(주)셈에너지 그린파워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49-3 1F
TEL.1577-8905 019-624-2371